

관광부터 스마트공장까지...미래산업 이끈다

서해의 오일조밀한 해안을 품에 안고 있는 시흥은 경기도 서부권을 대표하는 도시다. 인구 56만 여 명으로 당당히 대도시에 진입한 시흥시는 지역 경제를 책임질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요즘 총력을 기울이는 사업이 있다. 바로 'K-골든코스트(K-Golden Coast)'의 구축이다. 월곡동 15km의 해안 지역에 레저와 관광, 문화, 의료, 유통, 스포츠 공간 등이 집약된 시흥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프로젝트다.

월곶항 등 해양레저산업 시설로 관광객 유치
배곧에 의료시설·무인이동체 연구단지 조성
바다 마주한 인천 송도와 시너지 효과 기대

●시흥의 미래 100년과 대한민국 경제 견인

K-골드코스트에는 월곳 국가어항을 비롯해 서울대
시흥캠퍼스, 시흥배곧서울대병원(가칭), 시흥서울대
치과병원(가칭), 경기경제자유구역, 배곧생명·한울공
원, 오이도 지방어항, 시화MTV 거북섬, 시흥스마트허브
스,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거점들이 들어
선다. 관광 명소이면서 신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발전
전략까지를 모두 포괄하는 지역이다.

지역 자체의 발전 가능성도 엄청나지만, 바다를 마주하는 인천 송도와 함께 일으킬 시너지 효과는 다른 지역에선 기대할 수 없는 K-골든코스트의 또 다른 강점이다. K-골든코스트의 핵심 거점들이 모두 완성되고 다양한 랜드마크 건물이 들어서면 이곳은 시흥과 송도의 야경을 감상하고 문화를 즐기는 새로운 명소가 된다.

●4차 산업 연구시설부터 대형 아울렛까지 포진

우선 주목할 시설이 배곧에 들어서는 서울대학교 시
흥캠퍼스와 시흥배곧서울대병원(가칭)이다. 서울대
시흥캠퍼스는 1단계 사업을 완료했다. 올해 의료바이
오 헬스 융합단지지를 비롯해 글로벌 산학협력 및 창업
단지, 주거지역복합단지, SNU 글로벌 타워 등을 조성
하는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이다.

800병상 규모의 시흥배곧서울대병원(가칭)은 뇌인지 바이오 분야를 특화로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고, 경기 서남부권의 미충족 의료 수요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흥서울대치과병원(가칭)은 시흥배



지난해 10월 개장한 세계 최대의 인공서핑장을 갖춘 시흥 웨이브 파크의 조감도. K-골프코트의 주요 거점 중 하나인 시흥MTV 거점에는 웨이브파크를 비롯해 국내 최초의 관서아 생산 유통단지인 이쿠아팜랜드, 해양생태계 보전과 관리를 위한 해양생태과학관 등의 주요시설이 들어서면서 국내 해양레저의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K-골프코트에서는 시흥MTV 거점설 외엔 문암도, 시흥, 천안시흥의 연구시설과 공장 등 미래산업의 주요 거점들이 들어선다.

사진제공 | 시흥시



시흥 K-골든코스트 웨이브파크 개장식의 임병택 시흥시장

곧서울대병원과 연계한 종합 의료체계의 한 축이다.

배곧지구는 지난해 6월 수도권 최초로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됐다. 시는 2027년까지 무인이동체 연구단지와 글로벌 교육·의료 복합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경기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따

큰 생산유발효과는 5조 286억 원, 고용유발효과는 1만 5897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무인이동체 연구단지에는 자율주행 미래모빌리티 센터, 대우조선해양 시험수조 연구센터, 지능형 무인이동체 연구소 등 7개 대학, 8개 기관, 55개 기업이 참여한다.

2019년 스마트산업에 선정된 시흥스마트허브는 제조업 르네상스 전진기지다. 시흥시는 2022년까지 2000여 개의 스마트공장을 보급하며 스마트 제조 공급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배곧생명·한울공원과 시흥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
은 시민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문화 힐링 시설이다. 인

근에는 시흥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과 배곧아브뉴프랑 등 쇼핑과 휴식, 외식, 문화 활동을 즐기는 상업시설도 있다. 시흥시는 이런 인프라를 활용해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K-골دن코스트 프로젝트에 대해 “수도권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해안 수변을 가진 시흥시가 대한민국 유일의 K-골덴코스트를 조성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시흥의 미래 100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할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업 완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Q ●K-골든코스트? K-골든코스트(Korea-Golden Coast)는 월곡에서 시화MTV까지 약 15km(직선거리 10km)의 해안이다. 이곳에는 시흥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레저와 관광, 문화, 의료, 첨단산업의 거점들이 집약되어 있다. 프로젝트 명칭에 들어간 '골든'에는 '중요한, 절호의, 최고의'라는 뜻을 담고 있다. K-골든코스트는 이 15km 구간을 대한민국의 대표하는 중요한 해안으로 만들겠다는 시흥시의 의지를 나타낸다.

“명품낙조 감상·실내서핑”...K-골든코스트의 ‘MUST VISIT’ 명소 3곳

●명품낙조와 해산물 미식, 월곶 국가어항

월곶항은 K-골든코스트의 시작점인 지역이다. 시흥시는 국가어항인 이곳에 국비 300여억 원을 투입해 기존 어항 기능과 함께 국내외 관광객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관광명소로서의 역할도 강화하기 위해 계획하고 있다.

특히 2025년 개통 예정인 철도 노선인 가칭 월곶-판교 선에 대한 기대가 크다. 현재 40km 구간에 9개 정차역이 확정됐는데 시흥시청과 광명, 안양, 인덕원 등 5개 환승역이 들어서는 황금노선으로 꼽힌다. 원주 강릉과 서울까지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관광명소로서 가치도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서해안의 명품 낙조를 즐기고 해산물도 맛보는 관광어항으로 기대를 받는 월곶항은 2022년 실시설계 완수 및 착공해 2025년 준공이 목표다.

●시흥의 랜드마크 빨간등대, 오이도

수도권 지하철 4호선의 종점이 있는 오이도는 시흥의 랜드마크인 빨간등대(사지)로 유명한 곳이다. 지난해 2월 지방어항으로 지정되어 2027년까지 도비 121억 원을 포함한 152억 원을 투입해 어업인과 관광객을 위한 시설을 조성한다. 오이도는 또한 2019년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 300사업’에 선정됐다. 2022년까지 91억 원을 투입해 어항시설 정비와 함께 문화거리 조성, 관광활성화 사업 등을 진행한다.

●해양레저의 중심, 시화MTV 거북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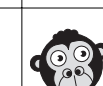
시화MTV 거북섬은 지난해 10월 세계 최대 인공서핑장을 갖춘 '시흥 웨이브파크'가 개장한다. 시흥 웨이브파크는 16.6만㎡ 규모로 시간당 25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인공서핑장은 겨울에도 15도 안팎의 수온으로 1년 365일 즐길 수 있다. 시화MTV 거북섬에는 앞으로 웨이브파크를 중심으로 아쿠아팻랜드, 해양생태과학관 등도 이어나다. 중앙아파트랜드는 국내 최초 관상어 생산 및 유통 단지로 2022년 6월 준공이 목표다. 해양생태과학관에는



해양교육 홍보시설과 해양동물 구조, 치료센터, 해양생물 R&D 센터 등이 들어선다. 이밖에 클럽하우스, 해상계류시설, 실내 보관시설 등을 갖춘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도 내년 착공할 예정이다.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4월 14일(수) 음력: 3월 3일 문의 : (02) 812-1201, 도원학당

	취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소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호랑이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토끼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용 행운색: 흰색 길방: 서		뱀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소가 등을 빌릴 언덕을 만나는 대길한 운으로 널리 동지를 구할 수 있으며 크게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유순한 자가 정당한 지위를 얻어 강력한 힘을 가지니 오히려는 자가 많아 기세가 등등해지는 운이다. 일을 마무리하는 날이다.											
매사 아직 적극적으로 진행시킬 단계가 아니다. 큰 계획이나 투자할 일이 있거든 재고하기 바란다. 기대만큼의 이득이 돌아오지 않겠다. 때때 운은 급하게 서두르면 손해는 보겠지만 매책은 이루어진다. 취직 시 북서방향으로 머리를 향하라.											
강인한 정신력으로 돌진할 수 있는 힘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 능력이나 용기를 잃고 좌절할 경우 많은 실망을 안겨줄 수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말라. 한 발 앞선 행동도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정신적인 혼미로 실수할 수 있다.											
괴로움이 크겠지만 마음을 곧게 가지고 있으면 이로움이 있다. 현재는 재능과 능력을 인정받기 힘들고 입장도 뒤틀려있지 못하다. 고난 속에서 연마된 실력은 마침내 욕으로 빛나게 될 것이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운이기도 하다.											
감언이설에 조심만 한다면 일을 밍고 뜻은 펼치는 대로 행동하게 될 것이다. 더욱 적극적으로 밍고 나가며 최선을 다하라. 교섭과 거래에 있어서는 강경책보다는 온화책을 쓰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현재는 그것이 어느날 갑자기 될 것이다.											
기회를 얻어 공업을 이루는 운이다.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고 만사형통할 운세이다. 그러나 매사 항상 준비하는 마음 가짐이 필요하며 겸손하고 온화하게 생활하여 겉을 만들지 않도록 하라. 전환기와 같다. 준비가 완료된 것이다.											
	말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양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원숭이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닭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개 행운색: 흰색 길방: 서		돼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직장인은 능력을 인정받게 되지만 근처에 적이 도사리고 있으니 조심하라. 경거망동하지 말고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성실하고 진실 되게 생활하는 것이 좋다. 구직자는 곧 취업이 되겠으니 노력하라. 횡재수가 있는 날이다.											
지출을 억제해야겠다. 낭비벽이 생길까봐 나중에 남는 것이 없게 될 수도 있다. 또한 사치는 금물이니 질투를 없애야 하고 주변을 살펴쳐 나보다 못한 자를 도우면 후일 그 보답이 있을 것이다. 궁극통이라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시기이다.											
옹달샘에 흐르는 가냘픈 물줄기의 형상이다. 어둠과 답답하며 고뇌 속에 머물러 있을 때이니 극단적 마음이나 경거망동을 삼가라. 그러나 지적인 일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밝은 미래를 암시해주고 있다. 좋은 마무리의 날이다.											
소원하는 일이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조금만 더 기다린다면 거의 성취되겠다. 먼 곳의 여행은 급한 일이 아니면 보류하는 것이 좋다. 손재수가 있으니 도난에 주의하고 도장과 문서를 조심하라. 신중하고, 물기를 거둬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이 겉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듯 보이지만 어딘가에 허술한 면이 있으니 찾아서 보강하길 바라며, 도움을 청할 일이 있거나 자문을 구할 일이 있다면 여성에게 부탁해 보라. 감정을 자제하는 것이 대치법이다.											
주변사람들과의 인화에 지치거나 자기의 소임을 더 해나가야 한다. 손상모략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사랑으로 감싸주고 너그럽게 용서해 준다면 결국 내 사람 될 수 있을 것이다. 취직은 좀 더 기다려라.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강해지는 날이다.											

오늘의 날씨			14일(수)		
서울	0/0 3 14	인천	0/0 5 12	춘천	0/0 1 16
강릉	30/0 5 17	대전	0/0 4 17	전주	20/0 4 16
광주	20/0 5 16	대구	20/0 6 17	부산	20/0 7 18
창원	20/0 7 18	제주	20/0 9 14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최저 최고기온°C